

## 追慕辭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4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고귀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실력양성론을 전파하셨으며 언론인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계획하신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 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 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이루어 내하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창달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가장 풍요롭고 발전된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의 질서를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약육강식의 엄정한 국제 현실과 세계적 공황, 잠시도 방심 할 수 없는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 지난 역사를 반성치 않고 망언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 등 국외적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세대간 불신과 갈등, 자신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기에 바쁜 몰지각한 이기주의의 만연 등 국내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혼란할 때, 지난날 조국만을 생각했던 고하선 선생님의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이 더욱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합을 위해서는 나라사랑정신이 그 중심 가치로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애국선열과 호국용사께서 목숨 바쳐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땅을, 발전시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유지의 계승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고하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길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4. 5. 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직무대리 김영식